

설날가정에배순서



기독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설날가정예배순서

인도자 : 가족 중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정한 뒤,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모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 기도자를 정합니다.

예 식 사 인 도 자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기도 인 도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찬 송 552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빌립보서 4장 1-7절 가족 중에서

-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 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 3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설 교 인 도 자

(사회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인생에게나 사는 동안 기뻐할 일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 비결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과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깁시다.

모든 사람은 각자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바울은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결과로 감사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미리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 송 384장(또는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 다 함 께
기 도 가족 중에서
주 기 도 문 다 함 께

*각 가정은 예배문을 참조하여 가정행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묘 가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조상)의 무덤 앞에 모여
참시 동안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 찬송 : 490장(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
- 명절에 부모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기르실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
명절에도 시름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니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때때옷으로 차려입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못 다한 효도를
자식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형편에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희망의 터전을 일구다 가신 부모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 : 욥기 1 :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울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
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 설교 : (생략할 수 있다.)
- 찬송 : 488장
- 주기도문